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6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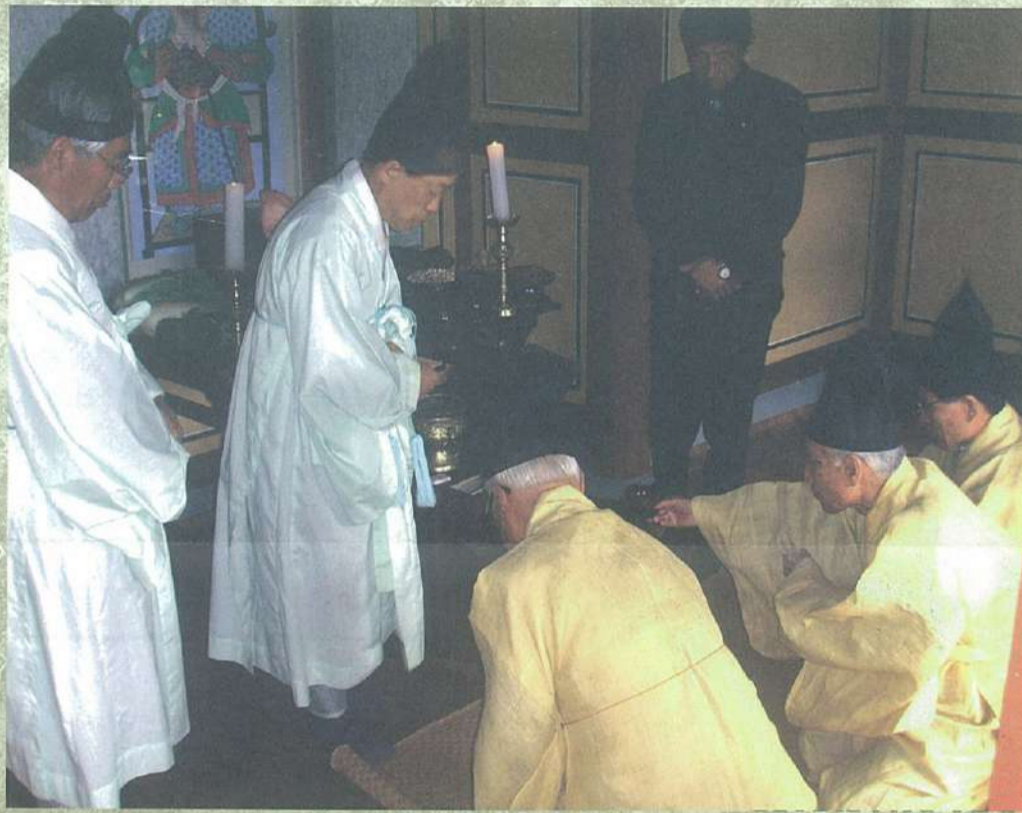
2010. 6. 17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행엽/ 편집인: 김은한/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시조부군 춘향대제 봉행

지난 4월 19일 음력 3월 6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 김문 일가들이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동원제 영당에서 초헌관 행엽(行燁), 아헌관 명재(明在), 종헌관 동주(東柱), 축관에 남호(南浩)로 하여 춘희(春熙) 집례로 춘향대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본 제례는 예년과 같이 시조부군 신명께 올리는 회생제로서 제수를 모두 생것으로 마련하여 공경히 올렸으며 제례



를 마치고는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음복겸 주식식사를 마치고 각각 귀포에 올랐다.

또한 전 김종식 회장님 작고로 인하여 중앙종친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춘향대제에 참석한 각 계파 회장님들이 향후 중앙종친회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총무간사 김범재

향료대

중앙종친회	회장 김행엽	300,000
지평공파	회장 김학원	100,000
절재공파	회장 종원	100,000
감찰공파		200,000
전서공파		100,000
대전종친회		100,000
부산종친회	병모	50,000

原稿 募集 要望

順天 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募集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敎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들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는 집성촌 소개
7.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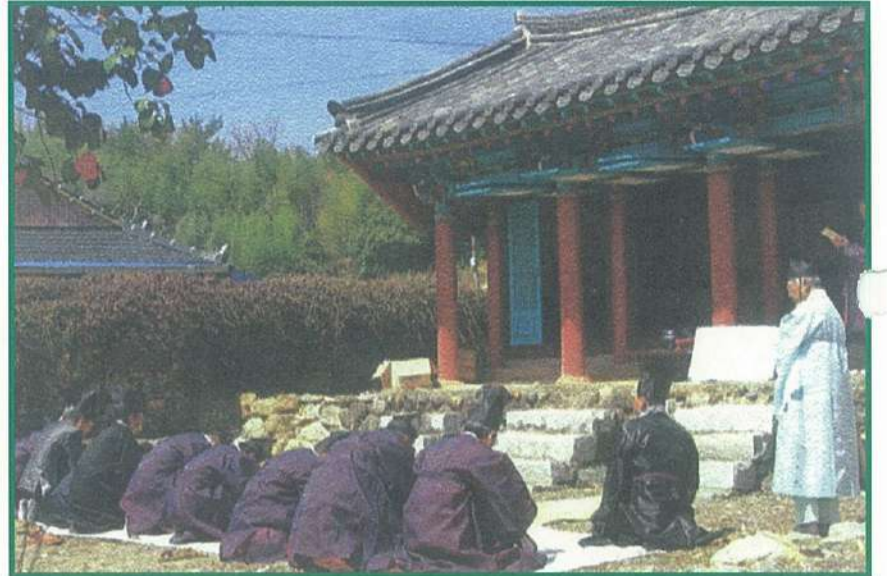
幹事長 白

방춘서원 춘향제 봉행

지난 4월 20일(음 3월 7일)에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소재 방춘서원에서는 양경공, 절재공, 복저공 등 3상공을 비롯하여 남은공, 망미당공 등 5현의 춘향대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제례는 柳重彬(고흥) 집례의 창홀로 시작되어 전폐례를 거쳐 초헌관 宋基文(순천)의 헌작과 대축 尹在天(해남)의 독축에 이어 아헌관 黃在鉉(보성)의 헌작 그리고 종헌관 黃仁南(해남)의 헌작으로 마치고 음복례와 망예례를 끝으로 제례를 모두 마치고 강당으로 옮겨서 거룩하신 선조님들을 추모하며 간소한 음복연이 있었다.

별유사 金正熙 근서



주부공(휘 承璧)조 단제 엄수



주부공 문중에서는 지난 4월 4일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송경산(세장산) 제단에서 주부공 문중원과 방계종친등 60여인이 참여한 가운데 주부공 양위등 8위의 단제를 초헌관에 亨昱, 아헌관에 鍾元, 종헌관에 明元, 축관에 龍錫으로 분정하여 淳元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하고 이어서 송경추모당제를 초헌관에 炳錫, 아헌관에 仁煥, 종헌관에 長元, 축관에 龍錫으로 하여 淳元 집례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제례를 마치고는 음복자리를 마련하여 음복주를 감사히 들면서 영육의 생을 사신 선조님들을 추모하고 돈복을 돈독히 하였다.

故 金公奇東頌德碑 豎立

고 奇東公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이하여 주부공(휘 承璧) 문중과 그 종원들이 지난 4월 4일 공의 고향마을 송경산에 몽은(蒙恩)의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公께서는 지난 8·15해방을 전후하여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주부공문중과 문중원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입은 분들의 후예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성금을 모아 그 은덕을 기리고저 公의 송덕비를 세우는 가당한 일이 있었다.



一竹 金公 學元 功績碑 除幕

절재 公 17대손이 되시는 金公께서는 40여년의 세월 종사에 관여하여 主簿公派총무, 節齋公派회장, 持平公派회장을 역임하면서 그 많던 大小事의 난 문제들을 때에 따라서는 주야를 불

고하고 동분서주하시어 깨끗이 해결되게 하였고 소중회로서의 입지가 안정되게 하셨으며 후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사안까지 마무리해 놓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奇東公 송덕비를 계기로 주부공 문중에서는 종본이 모여져 公의 공적을 기리고저 오늘 盛事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께서는 일찍이 중앙회의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대동보 편찬에도 공헌하시어 공로패를 받기도 하였으며 수 80이 멀지않은 오늘날에도 상임 고문으로 성을 다하고 있어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제 2세조인 휘(諱) 유(裕)의 묘소를 찾다



금년 시조의 춘향제에는 각과의 종친들이 유난히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향사 전야에는 으레 종친들이 위선사업이나 조상님들의 업적에 대한 일로 화제를 삼아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차례가 필자에게 돌아왔을 때 필자는 순천김씨의 옛 가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 가승에 의하면, 시조님이 묻힌 산은 바로 백운산인데, 이 백운산에는 시조님의 묘소만이 계신 것이 아니고, 시조님의 배위, 아드님, 손자, 증손자의 묘소도 계십니다. 시조님의 묘소에 대하여 옛 가승은 ‘묘소는 순천부 남부면 주암 창촌 백호(白虎) 관죽전(官竹田)에 계신다.’고 적고 있고, 그 아드님에 대해서는 ‘諱는 유(裕), 자(字)는 寬毅, 시호(諡號)는 忠武’이시고, 키가 크고 머리도 크며 둥근 얼굴에 눈은 수려하고 수업은 아름다우며 턱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 진성여왕(眞聖女王) 때 진변대장군(鎭邊大將軍)이 되시고 당(唐)나라 희종(僖宗) 광계(光啓) 10년(癸丑)에 역적 견훤(甄萱)이 국경을 침범하자, 공(公)이 분연히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역적 견훤은 공이 작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을 시해하였다. 배위는 박씨인데 난봉의 따님이시고, 묘소는 주암 창촌 백호(白虎)의 갑좌(甲坐)에 계시고 하마비(下馬碑)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쯤 이야기 하자, 춘희(春熙) 종친이, “왜 그런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 것이요?” 라고 하며 필자를 원망하는 어조로 말하기에 필자가, “대동보를 하기 위해 각과의 종친들을 순천김씨중앙종친회로 초청해서 옛 가승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고, 자료도 여러 번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춘희 종친은, “나는 설명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입니다.”

라고 하기에 필자가, “93년 경 하기강좌 때 이런 얘기를 두희 종친에게 했더니, 두희 종친은 ‘그런 자료 있으면 나 좀 주시오.’라고 하므로 ‘그 자료는 설명회 때에 이미 여러 번 나누어 드렸지요.’라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두희 종친은 필자가 나누어 준 자료들을 아마 살펴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료를 여러 번 나누어 드렸건만 옛 가승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온 종친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볼 때 다른 종친들도 역시 옛 가승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새삼스레 듭니다.

필자는 일단정신이 오직 조상을 찾는 일이었건만, 다른 종친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일삼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옛 가승의 내용을 가지고 필자에게 질문공세를 펼쳐 필자의 답변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았을 것인데, 반대하기 위한 이론만을 펼친 것이 너무도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대동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춘희 종친은 허탈해 하는 표정으로, “백호 날에 옥천 조씨의 조상 묘소가 있는데, 25년 경에 그 묘역을 정화하려고 옆에 있는 고총(古塚)을 파내기 위하여 여러 번 공고문을 냈습니다. 끝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파낼 날짜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서서 파내는 광경을 지켜보니, 백골이 깨끗하고 신장이 컸으며 옥베개 같은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 묘사 지내러 와서 백호 날 아래 길가에서 작은 비석을 본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하는 것이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치매가 와서 정신이 좋지 못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신이 맑아서 조씨네가 고총을 파낼 때의 상황이나

그 당시 만난 조씨 문중의 모모한 사람들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간혹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으니, 그 때에 고총을 팔 당시의 일들을 물어보겠소. 그런데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게 지남철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일단 고총을 파낸 곳에 가서 좌향을 확인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춘희 종친은 무척 허전하고 서운해 하였습니다.

자손들의 무관심 속에 조상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여러 종친들이 춘희 종친을 따라 고총을 파낸 곳에 가서 좌향을 확인한 결과 틀림없는 갑좌(甲坐)였던 것입니다. 여러 종친들은 모두 눈물어린 눈초리로 서로 쳐다보며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총 곧 제 2세조의 묘소는 이미 파헤쳐져 없어진 뒤인데,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제 2세조의 묘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들의 무관심 속에 조상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고려 때의 가승을 진즉 발견만 했더라도 제 2세조의 묘소는 파헤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평양군(平陽君)까지 지낸 시조의 묘소가 계신 산은 현재 있는 정도의 작은 면적이 아니었을 것이니, (많은 면적이 다른 성씨에게 빼앗김) 고총은 반드시 우리 조상의 묘소였을 것입니다. 백골의 체격이 가승의 기록과 일치된 점이나 장군의 신분과 걸맞게 옥베개 같은 유장품이 발굴된 것을 보더라도 제 2세조의 묘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승이 발견된 뒤에도 우리들이 조상님들의 묘소에 대해 전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세조의 묘소 외에도 시조의 손자, 증손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 2세조의 묘소는 가승에서 ‘갑좌’라고까지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지만, 가승에서 제 3세조인 휘(諱) 경흥(慶欽)의 묘소에 대해서는 “묘소는 순천 주암면 시내 위에 있다고 하는데 실전되었다.”라고 하고, 제 4세조인 휘(諱) 옥(旭)의 묘소에 대해서는 “묘소는 선고(先考)의 묘소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실전되었다.”라고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김씨의 후손들은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손들의 지성 속에 조상님은 다시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다

조상님의 묘소가 타성의 손에 의해 파헤쳐져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분하고 억울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조상님의 유골이나 유물을 찾아내는 일일 뿐입니다. 춘희 종친의 부친이 살아 계실 때에 정신이 맑아질 틈을 타서 고총을 파내는 일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을 물어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다행히 살아있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 사람이 설사 죽고 없더라도 그 자손 같은 이가 당시의 일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님은 지금 어디서 비바람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유물은 누구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천김씨 가문의 자손들은 뚝뚝 묻혀 한 몸이 되어 서둘러 조상님의 유골과 유물을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金東柱(前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내가 나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할 말을 찾지 못한채 당황할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가를 돌아다니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치며 다닐 때 누군가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4에 이런 말이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군중들이 하나님이 어떤분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 완벽한 답은 없을 듯싶다. 그러나 이 답은 이해를 돕는 답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것은 ‘이것은 이것일 뿐’ 더 이상 이해를 돕게 할 수 없는 것임을 넘치지 암시해 주신것 같다. “참나(眞我)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나일뿐이고 삶을 통해 변화된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순간적인 나를 말할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마도 전체적인 나는 Image로서 말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Image란 삶을 통해 내가 나를 만들어 놓은 지금의 나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의 느낌이다. 인격의 느낌을 짚수있는 잣대는 없을까? 고심하여 찾던 중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잣대를 발견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사이에 어디쯤 와 있는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소크라테스처럼 성인으로 살아갈수 있는데 말이다. 모름이 방황하게 되는 어리석음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라면 앎은 바르게 갈수 있는 지혜의 길이요 밝음의 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잣대란 다르아닌, 중생이 부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하신것을 내가 잣대로 이용해 본 것이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열 단계가 그것이다.

지옥의 상징은 고통이다. 지금 고통중에 있는 사람은 지옥

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고통은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탐심이 많아 탐욕스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귀의 상징은 가난이다. 지금 가난하여 배고픈 설움속에 사는 사람은 아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가난은 성냄, 분노로 파괴하는데서 오는 것이니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귀를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축생의 상징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無明에서 오는 것이니 사리판단이 어두운 자는 노예처럼 축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셋을 삼악도라 하는 것이니 삼악도에서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야 한다. 아수라의 상징은 다름이니 시비걸고 다투기 잘 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아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상징은 관계다. 관계는 주고 받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면 사람 죽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다. 천상의 상징은 기쁨이다. 즐거움속에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성문의 상징은 용서다. 하늘의 법을 듣고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할수 있는 사람이다. 연각의 상징은 지혜다. 하늘의 법을 깨달아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보살의 상징은 보시다. 깨달은 법을 행하여 고통받는 중생에게 베품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사람이다. 부처의 상징은 사랑과 자비다. 법외 주인으로서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 법륜을 굴리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부처다.

이것이 잣대의 내용인 즉 이 잣대에 비추어 나를 짚때 양심에 한점의 부끄럼없이 재야지 잣대를 속이면 그는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거짓으로 사는 사기꾼인즉 어디든 머물곳이 없게 된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나로 만들어 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할 일,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항상 마음을 살펴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잣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길 간절히 빌며 가름합니다.

2010년 5월

圖一 김 광 연

알 풀 살 림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밥은 짓기에 따라 좋은 쌀도 맛이 없게 되는 수가 있다. 또 이와 반대로 묵은 쌀로도 맛있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밥을 앞힐 때, 물에다 한 찻숟갈 정도의 소금과 한 숟갈의 사라다 오일을 넣어 지어 보면 밥이 훨씬 잘 퍼지고 윤기가 도는 맛있는 밥이 된다.

그리고 한가지 특별한 경우 -

밥을 하루나 이틀씩 오래 뒤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몇방울 떨어뜨리면 좋다. 쉽게 변해서 밥을 버리게 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동 정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판사 공과의 김동석(金東錫) 종친의 3남 대환(大煥)종친이 금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8천의군(義軍) 위령제 참사

충청북도 忠州市가 주관하는 8천의군 위령제가 충북도내 각 기관장과 충주시민들이 참례한 가운데 충주시 달천공원(탄금대)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그 옛날 임진왜란시 우리 선조님이신 장의공 휘 여물(汝物) 장군께서 신립(申砬) 장군의 부장으로 참전하시어 수세에 물러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으나 당시의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와 10여명의 왜병을 잘르고 8천의군과 함께 장렬하게 순절하셨다.

우리 중앙종친회에서는 조화를 보내고 행염(行燧)회장님과 학원(學元)상임고문께서 당일 참석하셨었다.

문경종친회 절재공 묘소참배

문경종친회에서는 오는 6월 12일 관내종친 100여분이 당일 새벽같이 서둘러서 관광버스 3대에 분승하여 충남 공주에 계신 절재공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추모한 다음 종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귀향길에는 새만금 단지를 관광한다고 하니 송조의 식을 높임과 아울러 종친간 돈목을 돈독히 하는 일이라 하겠다.

축 石湖先生 서화전(書畵展)

지난 6월 1일 본회 부회장이신 石湖東泳先生께서 50년 서예생활의 흔적인 서화전을 대구 예술회관에서 내외 귀빈과 많은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열었다. 선생의 혼을 담은 30여점의 주옥같은 작품들은 많은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필재가 있어 대학시절에는 교수님들의 교재작성을 도와 학비에 보탬이 되었었다 하며 그 후 서예인의 길을 가게 되었고, 특히 순박한 전통 서예를 고집하며 50년 붓과 함께하신 분이시다.



충정공종회 임시총회

충정공종 종회는 2009년 12월 11일 경기도 가남면 연대리 연대제에서 시조 39세 충정공 17세손인 황성공과 김봉원 종친을 3기 종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은 충정공 조부님 네분의 자녀 즉 감찰공, 군수공, 황성공, 상의원정공 4개 종과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였고 감찰공 종회 종회장 김춘희 종친을 수석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종재가 없는 관계로 각 종차에서 250만원씩 각출하여 긴급한 사항들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2010년 6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대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19명은 묘소 참배를 하고,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미완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의결하였다. 아쉬운 것은 수차에 거쳐 연락을 취하여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군수공 종회에서 한분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심히 아쉽다 하였으나 상의원정공 종회에서 7명이나 참석하여 자리를 메어주어 다행이라 하겠다.

▶ 토의안건

- 1) 미등기 상태인 재실 준공에 관한 건
- 2) 재실 단청에 관한 건
- 3) 생산성 없는 위토 처분에 관한 건
- 4) 종재 마련의 건
- 5)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재실 준공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회장과 총무, 재무 3인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재실 단청의 건은 자금 마련이 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종재 마련은 종원들

이 월 회비를 내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회비까지 내면서 과연 참석률이 있겠느냐 라는 중론에 따라 회비각출은 하지 않는 것을 하였으나, 제3자 점유 토지는 빠른 시간 안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며 처분에 관한 추진을 회장단에 위임하였다.

추가 사항으로 고유제 이야기가 있었으나 고유제는 재실 준공이후 자금 마련을 한 다음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내었다.

▶ 충정공 종회 3기 임원

- 종회장 : (황성공파) 김봉원
- 부회장 : (감찰공파) 김춘희 (군수공파) 김병무 (황성공파) 김중용 (상의원정공) 김종락
- 고 문 : (감찰공파) 김종구 (군수공파) 김재준 (황성공파) 김상호, 김영희 (상의원정공파) 김명제
- 감 사 : (감찰공파) 김동훈 (상의원정공파) 김명섭
- 총 무 : (감찰공파) 김은한
- 재 무 : (감찰공파) 김남호
- 유 사 : (감찰공파) 김동근 (황성공파) 김정수
- 이 사 : (감찰공파) 김기용(부천) 김태연(임실) 김동훈(임실) 김동연(임실) (군수공파) 김경열(고양) 김 환(군포) 김병욱(마포) 김창덕(양평) (황성공파) 김동식(대구달서) 김병연(대구북구) 김이철(대구중구) 김동환(대구수성) (상의원정공파) 김동선(고양) 김상석(경기광주) 김형섭(안산단원) 김준연(고양)

金總將軍과 順天의 城隍祠

-교수들의 글을 읽고-

우리 始祖이신 金總將軍에 관한 글이 수록된 고문헌으로 1486년 盧思慎등이 쓰고 1530년 李符등이 증보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이하 '여지승람' 이라 함)과 1770년 洪鳳漢이 쓰고 1782년 李萬運이 그리고 1903년 朴容大등이 증보한 '增補文獻備考'(이하 '문헌비고'라 함)가 있으니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며 관심도가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여지승람의 내용인즉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총(이하 '公'이라 함)은 견훤에게서 벼슬하여 인가별감에 올랐고 죽어서는 순천부의 성황신이 되었다"는 글로서 지나치게 소략되어 있어 아쉽고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곤혹스럽기도 하다. 그러 한데 오늘날 몇몇 교수들은 공에 관한 여지승람의 기록인 "견훤의 인가별감"을 아무런 의념도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부연서술하고 있어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그리하여 별 식견은 없지만 공과 순천 성황사에 관한 나의 소견을 감이 적어보기로 한다.

書誌名	年代 著者	內 容 文
新增東國輿地勝覽	1486 盧思慎 1530 李符 등 증보	• 金總仕甄萱 官至弓 隲別監 死爲 府城隍神
增補文獻備考	1782 李萬運 증보 1903 朴容大 등 30人 증보	• 本新羅宗姓 弓裔時弓 隲別監 移 籍順天 封平陽軍 死爲城隍神

먼저 공께서 甄萱의 인가별감의 벼슬을 지내셨다는 여지승람의 기록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성황신앙은 고려시대에 들어왔고 순천의 성황신앙도 고려시대에 생겼을 터인데 조국(신라)을 반역하고 고려와의 적대관계였던 그분들의 말과 같이 견훤에게 충성을 다한 공을 어찌 성황신으로 받들게 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한 고장의 성황신이라면 그 고장 수호에 크게 공헌한 실존했던 인물이었어야 했는데 공께서 견훤의 측근중의 측근인 인가별감이셨다면 무진주(광주)와 완산주(정읍)에서 주로 활약하셨을 터이니 어찌 여, 순지방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있으셨겠는가.

그리고 여지승람보다 300여년 후인 英祖대에 시작한 같은 류의 지리지인 문헌비고에 보면 "본 신라종성 弓裔時 인가별감..." 운운하였으니 이 기록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지승람의 견훤의 인가별감을 부정하고 궁예시의 인가별감 이라 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문헌비고는 박학다식하기로 이름난 李萬運이 9년간에 걸쳐 증보하였고 高宗대에 朴容大등 30여인의 文士들이 5년여에 걸쳐 증보하였다 하는데 여지승람을 참고하지 않았을리 없지 않은가.

그러한데 여지승람의 견훤의 인가별감을 부정하고 누구의 인가별감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 공께서 궁예의 손자로 잘못 수록된 모 김씨 족보가 참고된듯 - 애매하게 궁예시의 인가별감이라 한듯도 싶다 - 이와 같이 조선조 후기의 학자들도 부정했거늘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찌하여 가벼이 공을 견훤의 인가별감으로 단정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지승람에 수록되었으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도다.

그러면 千여년전을 사신 公의 사적 전반을 알 수는 없고 전해오는 기록이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가지 적어보기로 한다. 먼저 公의 생존연대부터 더듬어 보기로 한다. 다음 표는 우리 魏대 조상의 世系表의 윗부분으로 생존연대를 알 수 없어 옛날 未婚시대를 감안하여 25년을 한 세대로 하여 소급 작성된 것으로 공께서 850년대를 사신 것으로 되어 있다.



본표의 13, 14세조(휘 希哲 휘 平)의 연대가 史書의 기록과 부합되고 여수대학교 이준옥 교수의 '여수의 인물전'에서 볼 수 있는

公의 生年인 憲德王 17년(825)과도 잘 어울림을 볼 때 크게 잘못되지 않은 세계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견훤보다 50여년 앞선 분으로 견훤이 稱王할 시기는 公의 사후의 일일 것이다. 공께서는 여수의 어느 섬에서 전사하셨다는 이야기로 보아 7, 80의 수를 사시지 못하셨을 것이니 어찌 견훤의 인가별감이셨다 할 수 있겠는가. 목포대학교 이경엽 교수의 '順天의 鄉校와 郡縣祭儀'에 실린 현지조사에서 이일수(남 81) 노인의 말이 "신라의 김총장군이라 해"하고 말했듯이 현지인들도 신라의 장군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늘 어찌 여지승람의 기록만을 일말의 疑念도 없이 그대로 믿으려 하는가. 그리하는 것이 學者이고 教授이런가?

그러면 공께서는 어디에서 어떠한 生을 사셨을까. 다음 표는 國史大事典의 연대표에서 발췌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그 무렵의 西南州郡의 정황을 살필 수 있으리라.

846 (文聖王 8)	○ 봄 靑海鎮大使張弓福 淸海진에서 叛함. 武州人 閻長이 弓福을 죽임.
851 (文聖王 13)	○ 2월 靑海鎮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碧骨郡에 옮김.
855 (文聖王 17)	○ 1월 관원을 파견하여 西南州郡의 百姓을 按撫함.
859 (憲王安 3)	○ 4월 堤防을 수리하고 농업을 장려함.

위와 같이 4~5년의 간극으로 서남지방 정황의 변화가 있었다. 그 옛날 東西양을 막론하고 海賊들의 발호가 심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西南지방이 심하여 완도에 靑海鎮을 설치하고 張保阜를 진의 大使로 삼아 해로를 통제하게 하여 10여년간 어느 정도 안정되었었는지.

그러나 그의 딸로 인하여 謀叛한 장보고 846년에 살해되고 말았으니 진의 방비력은 이완되고 따라서 해적단의 침노가 다시 심해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민생은 어려워지고 민란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5년 후인 851년 淸海진을 아예 철폐하고 그곳 주민들을 碧骨郡(金堤郡)으로 이주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자 해적들은 해안지역인 순천, 여수지역 깊숙이 침노하게 되니 국내 도적떼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고난이 어떠하였겠는가. 그곳 각지에서 소요가 빈발하니 조정에서는 855년에 관원을 보내어 안무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무렵 30대의 武將이신 공께서 파견되시어 방수군을 이끌고 그 지역방위에 임하시게 되었으리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견훤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을 시기가 아닌가.

어느 교수는 공께서 그 지방의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豪族이었다고 하면서 그 현장이라도 본 듯이 방수군으로 견훤과 동고동락하였다고 하고 견훤이 봉기하자 그에게 충성하며 일생을 바쳤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해괴한 발상이 아닌가. 공께서는 일찍부터 武人으로서 사시고 武事에 능하시어 武將이 되시었을 것이다. 그곳 임지로 가시어 방수군을 이끌고 북쪽(순천)으로 남쪽(여수)으로 영일이 없이 北奔南走하시며 약탈, 방화, 인신해악 등 잔인 무도하게 노략질을 자행하는 賊徒떼를 토벌 소탕하여 민생을 안정케 하고 관후하게 덕을 베푸시어 백성을 편케 하시니 백성들이 많이 따랐을 것이다.

전계한 "순천향교와 군현제"에 실린 글 중에 그곳 古老들의 말이 공께서 전사하시어 사용하시던 장비는 찾았으나 시신을 못 찾아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招魂葬으로 예장하였다 하고 그 가벼운 밤나무 신주를 말에 싣고 왔는데 그 말이 밤을 많이 흘렸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밤나무 신주를 개가 넘어가더니 즉사하였다 하며 공께서 그와 같이 영험하셨음을 전하는 등 오늘날의 古老들은 아직까지도 흠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보첩에 보면 公 사후에 그곳 백성들이 公의 영정(?)을 그리어 진례산에 모시고 추모하니 후일 고려 太祖 公을 숭봉하여 安官祠라 사액하고 매년 향사케 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데 어찌 견훤의 충복인 인가별감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누구의 인가별감이셨을까요.

공께서 이곳으로 파견되시기 전에 어느 王의 弓隲別監을 지내셨을 수도 있겠으나 憲安王은 나이 들어 王位에 올라 단기간(857~860) 在位하였지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9년에 저수지 제방(碧骨堤?)을 수축하게 하는 등 農事를 중시하고 장려한 王으로 평야지방인 西南州郡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며 그 지방을 巡幸한 일이 있었으리라 그 시기는 公의 연치 30대로 여, 순지방에서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10년 3월 1일부터 ~ 2010년 5월 30일까지

부회장

- 1. 김경렬 2010. 3. 10 경기도 고양시
- 2. 김석연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고문

- 1. 김재준 2010. 2.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 2. 김동주 2010. 2. 26 경기도 성남시
- 3. 김인환 2010. 3. 10 충청남도 금산군
- 4. 김명재 2010. 4. 1 경기도 안양시

간사

- 1. 김범재 2010. 3. 15 경기도 이천시
- 2. 김은한 2010. 3.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

- 1. 김중원 2010. 2. 23 경기도 양주시
- 2. 김정희 2010. 3. 11 전라남도 해남군

운영위원

- 1. 김기석(이병) 2010. 3. 29 경기도 고양시

이사

- 1. 김동권 2010. 3. 15 전라북도 임실군
- 2. 김영학 2010. 3. 16 경기도 용인시
- 3. 김상범 2010. 3.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 4. 김유석 2010. 3. 22 전라남도 담양읍
- 5. 김상윤 2010. 3. 22 전라남도 해남군

대의원

- 1. 김유환 2010. 3. 17 충청남도 부여군
- 2. 김낙희 2010. 3. 18 부산광역시 남구

회원

- 1. 김동이 2010. 2. 18 울산광역시 북구
- 2. 김진출 2010. 2. 19 경기도 안산시
- 3. 김갑연 2010. 2. 18 전라북도 진안군
- 4. 김기현 2010. 2. 22 광주광역시 북구
- 5. 김정학 2010. 2. 23 부산광역시 진구
- 6. 김길영 2010. 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 7. 김병모 2010. 2. 24 부산광역시 진구
- 8. 김필수 2010. 2. 24 인천광역시 강화읍
- 9. 김정남 2010. 2. 26 인천광역시 부평구
- 10. 김동진 2010. 2. 25 대구광역시 북구
- 11. 김수용 2010. 2.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 12. 김창환 2010. 3.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3. 김진수 2010. 3. 5 서울특별시 강동구
- 14. 김성희 2010. 3. 9 서울특별시 종로구
- 15. 김수형 2010. 3. 10 전라북도 익산시
- 16. 김용환 2010. 3. 11 강원도 원주시

- 17. 김종하 2010. 3.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 18. 김인홍 2010. 3. 11 경상북도 영주시
- 19. 김외학 2010. 3. 11 대구광역시 동구
- 20. 김득수 2010. 3. 11 대구광역시 북구
- 21. 김상일 2010. 3. 12 경기도 고양시
- 22. 김방석 2010. 3. 12 광주광역시 서구
- 23. 김동연 2010. 3. 11 전라북도 임실군
- 24. 김동호 2010. 3. 12 충청북도 보은군
- 25. 김동진 2010. 3. 12 경기도 이천시
- 26. 김대섭 2010. 3.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 27. 김성연 2010. 3. 12 울산광역시 남구
- 28. 김기혁 2010. 3. 15 경기도 수원시
- 29. 김종삼 2010. 3. 11 경상북도 안동시
- 30. 김기원 2010. 3.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 31. 김상열 2010. 3. 15 경상남도 김해시
- 32. 김상욱 2010. 3. 16 경기도 고양시
- 33. 김재용 2010. 3. 16 경기도 성남시
- 34. 김봉태 2010. 3. 12 전라남도 해남군
- 35. 김영환 2010. 3. 12 전라북도 정읍시
- 36. 김동석 2010. 3. 12 경상북도 성주군
- 37. 김순수 2010. 3.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 38. 김동성 2010. 3.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 39. 김종열 2010. 3. 15 경상북도 경주시
- 40. 김목희 2010. 3.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 41. 김성수 2010. 3. 15 경상북도 의성군
- 42. 김찬정 2010. 3. 16 충청남도 부여군
- 43. 김승환 2010. 3. 16 경상북도 상주시
- 44. 김동석 2010. 3. 17 경기도 김포시
- 45. 김종낙 2010. 3. 18 경기도 이천시
- 46. 김태현 2010. 3. 16 전라남도 해남군
- 47. 김명환 2010. 3. 17 충청남도 부여군
- 48. 김성남 2010. 3. 18 전라북도 익산시
- 49. 김백원 2010. 3. 19 인천광역시 서구
- 50. 김한용 2010. 3. 19 경기도 수원시
- 51. 김해동 2010. 3.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 52. 김봉열 2010. 3. 19 경기도 수원시
- 53. 김동학 2010. 3. 17 경상북도 안동시
- 54. 김선균 2010. 3. 19 강원도 춘천시
- 55. 김동용 2010. 3. 19 경상북도 경산시
- 56. 김종태 2010. 3.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 57. 김종석 2010. 3. 19 충청남도 부여군
- 58. 김동필 2010. 3.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 59. 김상환 2010. 3. 24 경기도 고양시
- 60. 김상술 2010. 3. 22 전라남도 해남군
- 61. 김상환 2010. 3. 24 경기도 고양시
- 62. 김진오 2010. 3. 24 강원도 삼척시
- 63. 김상만 2010. 3. 24 전라남도 해남군
- 64. 김석희 2010. 3. 24 대구광역시 남구
- 65. 김성열 2010. 3.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 66. 김상하 2010. 3. 24 경기도 평택시
- 67. 김세덕 2010. 3.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 68. 김상기 2010. 3. 25 광주광역시 동구
- 69. 김진추 2010. 3. 25 전라남도 광주시
- 70. 김임용 2010. 3. 25 대구광역시 동구
- 71. 김재석 2010. 3. 25 광주광역시 서구
- 72. 김정현 2010. 3.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 73. 김동주 2010. 3.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 74. 김창수 2010. 3.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 75. 김재명 2010. 3. 25 제주도 서귀포시
- 76. 김춘규 2010. 3. 26 광주광역시 서구
- 77. 김영석 2010. 3.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 78. 김채영 2010. 3. 26 전라북도 익산시
- 79. 김성환 2010. 3.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80. 김종구 2010. 3. 30 전라북도 전주시
- 81. 김운용 2010. 3.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 82. 김동섭 2010. 3.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 83. 김기남 2010. 3.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 84. 김해용 2010. 3. 31 대전광역시 서구
- 85. 김정희 2010. 4. 1 충청북도 청주시
- 86. 김덕소 2010. 3. 31 경상북도 안동시
- 87. 김규삼 2010. 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 88. 김만형 2010. 4.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89. 김동삼 2010. 4. 12 경기도 하남시
- 90. 김세연 2010. 4. 13 경기도 파주시
- 91. 김형호 2010. 4. 12 전라북도 순창군
- 92. 김영석 2010. 4.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 93. 김귀순 2010. 4.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 94. 김원희 2010. 4. 27 경기도 남양주시
- 95. 김수광 2010. 4. 27 인천광역시 부평구
- 96. 김지일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 97. 김채연 2010. 4. 29 인천광역시 서구
- 98. 김동호 2010. 4. 29 전라북도 임실군
- 99. 김정록 2010. 5.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 100. 김용욱 2010. 5. 24 전라북도 완주군
- 101. 김수영 2010. 5. 28 경기도 수원시

무명인

- 1. 2010. 3. 17 새마을금고/속초지점
- 2. 2010. 3. 18 신도화전농협
- 3. 2010. 3. 19 우체국/한밭대학교
- 4. 2010. 3. 22 국민은행/서초무지개지점
- 5. 2010. 3. 22 신한은행/수락산역지점
- 6. 2010. 3. 19 농협/임실지점
- 7. 2010. 3. 23 신한은행/잠원동지점
- 8. 2010. 3. 31 우리은행/방배동지점
- 9. 2010. 4. 21 농협/금호동지점
- 10. 2010. 5. 13 울산축산농협

6면에서 계속

내외의 賊徒들의 퇴치를 위해 활약하고 계실 때로서 우리 家乘譜의 公의 사적난에 “奉王駕還京師”란 대목이 있으니 즉 “서울로 돌아가는 왕을 호종했다”는 내용으로 적도들의 내습에 대비하여 그 지방에서 勇名을 떨치고 계신 公이 弓隲別監이란 임시직함을 받고 환도하는 王을 호종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가별감이 公이 관함으로 전해지게 되었으리라는 것이 나의 견해인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전해오는 “여수의 어느 섬에서 전사하셨다”는 口傳으로 보아도 公께서는 왕가 호종의 일을 마치시고 임지인 여, 순지

방으로 돌아오시어 그 지방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다 생을 마치셨을 것이다. 그러하니 公의 생애에서 인가별감이란 관함은 큰 비중이 될 수 없고 여, 순 지방 수호만이 무장으로서 公의 사명이셨고 또 한 그 일의 수행이야말로 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방의 鄉儒 조현범의 “영웅같이 사셨다”는 칭송의 글이야말로 선비적 안목으로 통찰한 견해라 할 것이다. 우리 어찌 이 함축된 표현에 공감하지 않겠는가. <다음호에 이어짐>

38세손 明在 삼가 씀.

Great Challenge

더 큰 세상을 향해!
한화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